

건설근로현장 안전 최선

포스코이엔씨, 그룹안전특별진단TF 신설… 비상경영체제 갖춰

재해원인 해결책 마련·공사 중 위험요소 발견시 근로자 철수 등

포스코이엔씨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일선 건설근로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그룹안전특별진단TF를 신설하고 그룹 전 사원이 비상경영체제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들과 정부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전문가인 송치영 사장을 선임, 전진 배치하는 한편 사망사고를 종식시키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그룹내 전 현장에서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전면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17일 포스코이엔씨에 따르면 잇따른 사망사고로부터 이를 근절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장내 안전감시원을 대폭 증원, 배치하고 그룹전체 차원에서 안전특별진단TF를 구성하는 등 쇄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포스코이엔씨의 쇄신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룹안전특별진단TF구성 △그룹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 진단 △개선과제를 도출해 역할 부여 등이다.

또한 공사재개 프로세스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시공중인 전체 103개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하고 그룹안전진단TF와 외부 전문가의 점검/개선 △이를 바탕으로 CSO승인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비상경영체제 가동으로는 △재해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현장소장이 직접 확인하

1. 사고 재발방지

- **[그룹안전특별진단TF]** 포스코그룹은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8월 1일 그룹안전특별진단TF를 신설하고, 그룹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역할 부여하였다.
- **[공사재개 프로세스]** 포스코이엔씨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공 중인 전체 103개 현장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였으며,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그룹안전진단TF와 외부 전문가의 점검/개선, CSO 승인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음. * 8.12 기준, 작업중단 103개 중 진단 81개(79%), 진단 결과 개선 확인 32개(31%), 공사재개 17개
- **[안전비상경영체제 가동]** 재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안전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였으며, ① 현장소장이 직접 확인하는 안전한 일터, ② 고위험 환경 안전관리 강화, ③ 근로자 및 협력사 참여 확대, ④ 경영진 및 본사 현장 지원 강화 등 4가지가 핵심임.
- ① 현장소장 직접 확인 :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작업시작 전에는 현장소장 주관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근로자를 철수시킬 계획임. 작업종료 후에는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명일 작업환경을 점검할 예정임.
- ② 고위험 안전관리 강화 : 모든 위험 환경에서의 작업에는 관리자를 배치 후 진행하겠음. 단기적으로 현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총 현장안전원 외 약 200명의 본사직원이 투입될 예정임. 안전예산도 확대 편성하여 향후 약 100명의 안전 보조인력을 증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1,700대의 CCTV도 2,000대까지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중점 관리하겠음.
- ③ 근로자 및 협력사 참여 확대 : 작업반별 TBM 시 전체 근로자 의무발언 시행으로 현장의 실질적 안전 문제를 도출하고, 안전활동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예정임. 또한 협력사 경영진/작업반장, 포스코이엔씨 현장소장간 월간 안전타운을마침도 정례화하겠음.
- ④ 경영진 및 본사 현장 지원 강화 : 사업본부 일원은 주 2~3일 현장 주재근무, 스태프 일원은 월 2회 전일 현장의 예외사항 지원 등 경영진 및 본사의 현장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음.
- **[현장의 책임있는 역할 강화]** 위 안전비상경영체제 외에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현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공사하도록 구조혁신 Council을 운영하며 (포스코에서 Agenda 협수 후 내용 추가)를 논의 중임. 향후 건설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점을 다하겠음.

포스코이엔씨가 내놓은 사고 재발방지 대책.

〈사진=포스코이엔씨 제공〉

는 안전한 일터 확보 △공사재개시 작업전 현장소장 주관 집중 안전점검과 위험요소 발견시 근로자 철수 △작업 종료후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 명일 작업환경 점검 등이 중심이다.

고위험 관리강화를 위한 방침으로는 △모든 위험 환경에서의 작업시 관리자 배치후 시행 △현장관리요원 증원 및 현재 운영중인 1,700대 CCTV를 2,000대까지 확대 사각지대 집중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근로자와 협력사 참여 확대 △작업반별 TBM시 근로자 의무발언 시행 실질적 안전문제 도출 및 해결 △안전활동에 대한 포상 강화와

함께 협력사, 경영진, 작업반장·현장소장간 월간 안전타운을 미팅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영진과 본사 현장지원 강화 △사업본부 임원 2~3일 현장 주재 근무 △스태프임원 월 2회 전일 현장의 애로사항 정치 지원 등이 핵심이다.

포스코이엔씨는 임정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의 외주화를 지양하고 임정의 책임있는 자재와 그룹차원의 공사하도록급 구조혁신을 도모해 향후 건설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5일 보훈누리공원 내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에서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는 참배행사가 열린 가운데, 우병기 전주시장이 헌화를 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뜻 계승, 우리 모두의 책임’

전주시, 독립운동추념탑사 광복80주년 기념 참배행사

전주시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5일 보훈누리공원 내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에서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는 참배행사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우병기 전주시장과 남관구 전주시회의 의장,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의회의 의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원, 기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 묵념 등을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인 순국선열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겼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국권 회복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깊이 기리며, 그 고귀한 뜻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엄중한 책임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광복을 되찾은 날인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권희성 기자

시민 보행안전 행정력 집중

덕진구, 여의동 쪽구름4길 도로개설공사 완료… 이달 말 개통

전주시가 지역주민 교통 편의와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중성)는 도시가로망 확충과 주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여의동 쪽구름4길(소로1-84호선, 연장244m·폭10m)의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설된 도로 구간은 우석고등학교에서 여의동 코모넛마트까지 이어지는 연장 244m 규모의 주택가 내부 신설 도로이다.

이에 구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을 마친 뒤, 2024년 1월 착공하여 약 20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현재는 모든 공정을 마친 상태로, 시공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 오는 8월 말 개통할 계획이다.

구는 도로가 개통되면 오가는 시민들이 우회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되며, 차량 이동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희성 기자

불법광고물 치우는 개학 시기

덕진구, 합동 집중 정비 나서

22일까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도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중성)가 불법 광고물이 치우는 개학 시기를 맞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활동을 벌인다.

17일 덕진구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정비는 시민들의 보행환경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풍선간판(에어라이프)과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오가는 시민이 많은 전북대 주변과 혁신·만성동, 예곡시터, 역·터미널 등 도심 변화와 백제대로, 동부대로, 서부 우회도로 등 주요 가로변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활동을 벌인다.

정비활동은 민(옥외광고협회), 관(덕진구청), 경(덕진경찰서)이 합동으로 4개 정비반(12명)과 1개 단속반(4명)이 편성돼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통한 야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노후 및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 정비 계획과 단속을 실시하고, 선제적인 유해 광고물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유해 광고물 배포자는 경찰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주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영업장 폐업과 이전 등으로 인해 방치돼 노후·위험 상태에 놓인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주민센터 계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김중성 덕진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정비사업은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용기를 기억합니다’

전주시, ‘기림의 날’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 행사… 시민들과 추모의 뜻 나뉨

전주시는 ‘제80회 광복절’을 맞아 종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이름을 위로하며 추모하는 헌화 행사를 열었다.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연 이날 헌화 행사는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대표 방용승) 위원들과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은아) 회원 등 시민 2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강점기 큰 고초를 겪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다. 시는 이후 2015년 8월 건립된 전주 평화의 소녀상에서 매년 기림의



전주시는 ‘제80회 광복절’을 맞아 종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며 추모하는 헌화 행사를 열었다.

날을 기념해 헌화 행사를 진행해 왔다.

3·1절과 8·15 광복절, 수요 집회 등 주요 행사 때마다 평화의 소녀상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용기를 기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기와 인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덕진동 주민자치위, 삼계탕 나눔행사 성금 기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임문옥)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 5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덕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기부금으로 삼계탕을 구매해 정성스럽게 포장한 후 독거 어르신 5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문옥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할 한 끼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나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직접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의 체력 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영 덕진동장은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덕진소방서, 소리축제 등

안전사고 예방 총력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와 ‘2025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을 단 한 건의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안전한 축제 도시 전주’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행사 기간에는 지휘차·펌프차·구급차 등 차량 12대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50여명을 투입, 공연장과 인근 지역에 ‘소방 안전지휘본부’를 가동했다.

특히 소리축제 개막식에서는 60대 북동 환자와 20대 파호흡 환자가 발생했으나 소방구급대가 곧장 현장 도착해 응급처치 후 안정시켰다. 얼티밋뮤직페스티벌 현장에서는 더위와 인파 속에서도 질서 있는 관람 환경을 유도하며, 폭염·탈진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김재훈 기자